

# “부모님에 이어 후계자도 쓸 수 있는 낙농기자재 공급에 주력”

미국 보우메틱사(BOU-MATIC)의 한국 파트너 **(주)이지엠코리아**

이지엠코리아는 1990년에 낙농기자재 설치 및 A/S를 주로 하는 이스트상으로 출발했으며 기술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1993년 네덜란드의 G.M사(Gascoigne-Melotte B.V)와 단독으로 업무협약을 체결, 한국 시장에 유럽의 낙농기자재 보급을 시작했다. 현재 낙농자동화시장의 선두주자로 하나의 제품, 부품의 최소화, 無결점, 無서비스를 추구하고 고객중심에서 새로운 낙농 선진화 해법을 찾아 미래 지향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이지엠코리아(경기도 광주)를 찾아가 봤다.



## 미국 보우메틱사의 한국 파트너가 되기까지

“세계 유력 낙농기업에는 ‘웨스트팔리아(GEA)’, ‘드라발(Delaval)’, ‘보우메틱’ 3대 기업이 있는데요. 저희 이지엠코리아는 이 중 보우메틱의 한국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지엠코리아가 보우메틱의 한국지사로 출발한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 G.M사의 한국 지사로 있으면서 꾸준히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을 때 2004년 미국 보우메틱과 G.M이 글로벌 합병을 하면서 양사 제품에 대한 단독 업무를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미국 보우메틱에서는 낙농착유기, 착유실, 우군 관리, 냉각시스템, CIP세척제, 유방건강관리제품, 발굽관리제품 등 낙농자동화기기와 그밖에 낙농기자재를 전 세계에 생산, 공급하고 있다. 이 중 이지엠코리아는 한국 시장에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낙농 제품들을 수입·유통·설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30여 개의 대리점과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효율적인 A/S를 위하여 본사 직통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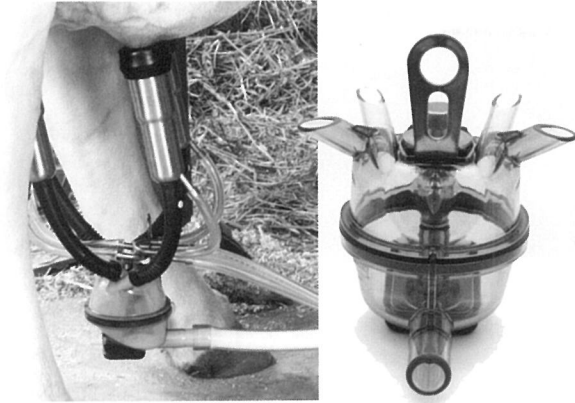
“이지엠코리아는 과거 2열 3~4두 탠덤 2열 5~8두 헤링본을 주로 설치해 왔으나 근래에 목장들의 대형화로 인해 2열 10~12두 사이드바 이사이드, 24두 로터리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최근 당진낙농축협에서 추진하는 ‘낙농단지조성사업’ 시행자로 저희 이지엠코리아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정된 착유기는 10개 농가가 공동으로 착유할 수 있는 60두 규모 로터리 착유기인데요. 내년 혹은 내후년 설치될 예정으로 완공된 후의 모습이 정말 기대됩니다.”



1, 2 미국과 중국 착유실에 설치된 2열 40두 보우메틱 착유기

## 5가지 특허기술이 집약된 ‘보우메틱 크라우’

낙농가들에게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착유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실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엠코리아 이준용 부장은 “착유의 중심선에 있는 유두에 직접 부착하여 우유가 가장 빠르고, 시원하게 얼마나 잘 나오는지



▲ 5가지 특허기술이 집약된 이지엠코리아의 '보우메틱 크라우'

를 확인할 수 있는 '크라우'만 교체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그 주인공은 ▲소젖의 모양에 맞춰 안정적인 착유를 가능케 하는 '앞과 뒤 노즐의 위치 차이' ▲1만 번의 충격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3톤 무게 지탱' 능력 ▲우유 유속을 최대화 시켜주는 '에어벤트 구멍' ▲앞 젖은 뒷벽, 뒷 젖은 앞 벽을 타고 내려오게 하는 '거품이 생기지 않게하는 지그재그식 우유배출' ▲자동 무게 분배를 통해 크라우를 항상 자체 직각 상태로 유지시키는 '수평 시스템' 등의 5가지 특허기술이 집약된 '보우메틱 크라우'다. 특히 착유속도를 약 15%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고능력우에 탁월하게 작용한다. 또한 3톤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지만 만약 깨질 경우 2년 내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도 가능하다.

이지엠코리아는 최근 낙농가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무주유 진공펌프'를 한국에 처음 들여 오기도 했다. 특히 오일이 필요 없어 경제적인데다 인버터를 달면 전기 요금도 절약할 수 있는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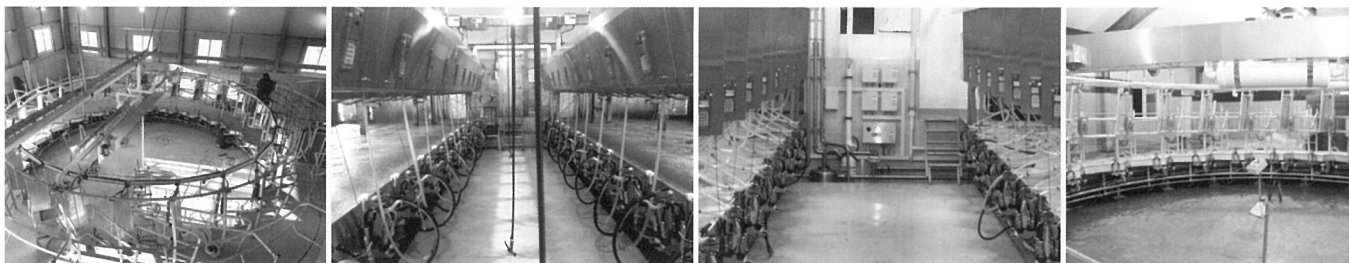
점이 있다. 이준용 부장은 "인버터가 부착된 무주유 진공펌프는 착유기를 한 기 구동할 때와 두 기 구동할 때를 구분해서 일정한 착유압을 유지하도록 회전속도를 스스로 조절한다"며 "인버터가 없는 펌프는 일반 오일 펌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 고장 없는 맥동기, 방수 기능 갖춘 컨트롤 박스

이지엠코리아가 취급하는 제품 중 '보우메틱 맥동기'는 단 3가지 부품으로 구성돼 있어, 타 기업 제품들에 비해 부품 가짓수가 현저히 적다. 또한 타 제품과 A/S 부품 교체시 순수한 소모품만 계산할 때 소모품 비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다(자사 맥동기 대비 90% 절감). 특히



▲ 3가지 부품으로 구성된 맥동기, 터치포인트, 라이너(시계방향)



▲ 이지엠코리아의 제품들이 설치된 목장들(왼쪽부터 남리목장, 대우목장, 외우목장, 흥천목장)

누구든지 손쉽게 교환이 가능하게끔 구성되어 있어 부품 키트를 구매해서 수리하기 쉽고 A/S가 필요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져 구매 시 이지엠코리아가 권장하는 교체주기인 10년간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농가들마다 착유실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중 매일매일 물 세척을 하는 농가에게 이지엠코리아의 제품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바로 착유실의 모든 자료를 판독하고 검사하게끔 해주는 디스플레이 컨트롤 박스가 ‘완전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위치 방식이 아닌 터치식으로 작동해 지속해서 압력을 가할 경우 고장의 우려가 있는 타 제품에 비해 고장 확률이 월등히 적다고 한다.

## 후계경영으로 꾸준한 관리 약속... 해외구매대행도

“현재 전국 낙농가들은 1세대에서 2세대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이지엠코리아도 2세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대표님이 걸어오신 길을 보아왔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용 부장은 “후계낙농인들의 가장 큰 강점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기계를 사용하는 노하나 사양관리, 친목도모를 할 수 있는 전국 단위 규모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만들어 정보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후계낙농인들이 목장에 들어오면서 활성화된 것 중에 하나는 ‘해외 직구’다.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거나 더 값싸게 구매할 수 있기에 성황하는 것인데, 부피가 큰 물건은 개인 구매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지엠코리아에서는 이런 요구를 파악, 해외구매 대행을 하고 있다. 방법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회사, 품명, 사진 등을 바탕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국 보우매틱의 한국 파트너로서 수많은 제품들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제품들을 수입·유통했고 그 결과 낙농가들의 큰 신임을 얻고 있는 이지엠코리아. 특히 후계경영으로 우리나라 낙농산업에 처음 가졌던 마음 끝까지 책임진다는 다짐을 응원해본다. 